

남구발 ‘교통혁명’ 시작됐다 용호·우암·감만 노면전차 추진

〈트램·Tram〉

부경대·경성대역~오륙도SK뷰아파트 5.4km 오륙도선

부산교통방송국~우암·감만~범일역 8.8km 우암·감만선

부산시 대중교통 혁신정책 발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용호지역과 우암·감만지역에 신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이 놓일 전망이다.

부산시가 최근 발표한 민선7기 대중교통 혁신 계획에 도시철도 2호선 부경대·경성대역~남부면허시험장~오륙도SK뷰아파트를 연결하는 오륙도선(용호선)과 TBN부산교통방송국~우암·감만을 거쳐 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까지 잇는 우암·감만선 신설안이 담겼다. 두 노선은 부산교통방송국 앞 사거리에서 환승·교차하고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남구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트램이 운행되면 지역 최대 숙원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륙도선은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오륙도SK뷰아파트까지 5.4km로 8개 정거장이 들어오고 사업비로 2400억원이 예상된다. TBN부산교통방송국 앞에서 용당~감만~우암과 문현동 일부지역을 지나는 우암·감만선은 길이 8.8km에 15개 정거장이 설치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사업비는 3400억원 정도 절쳐진다. 우암·감만선은 철도 기능을 상실한 기존 우암선 철로를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우암선 민·군 공동 활용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감만동과 우암동 일대는 매머드급 재개발(뉴스테이)사업과 2021년까지 우암부두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실한 시점이며 트램 신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트램 도입과 관련해 아직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예산 확보 등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오륙도선과 우암감만선 트램 설치는 큰 그림만 마련돼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정부의 사업타당성과 용역을 거쳐야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재정비해 트램 확대 계획을 공식화하고, 2021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를 얻은 뒤 노선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관계기사 4면>

경제성·편의성·관광효과 모두 갖춘 ‘도로 위 전철’

트램(Tram)은 도로상에 부설된 레일을 달리는 노면 전차다.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5 내지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인데다 공사기간도 짧다. 승·하차가 용이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편리하다. 반면에 기존 도로 교통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차선 하나가 별도 필요해 좁은 도로에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단점도 있다. 오륙도선과 우암·감만선은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배터리로 충전해 달리는 무가선(Wireless) 트램이 도입된다.

민선 7기 100일 ‘주민과의 행복한 만남’ 성료

각계각층 200여명 참석

박재범 남구청장이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8일 ‘주민과의 행복한 만남’ 행사를 가졌다.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홀에서 가진 간담회는 관내 17개동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민과의 행복한 만남 우리 함께 해요’

리는 행사 명칭에 걸맞게 100분 가량 각본 없이 유쾌하게 진행됐다. 일반인 성악가와 용호3동 주민으로 구성된 오카리나 연주팀의 오픈링 공연을 시작으로 신임 구청장에게 바라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미리 촬영해

방영했다. 구정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담은 동영상 시청에 이어 참석 주민들이 간담회 직전에 손으로 작성한 질문지를 무작위로 뽑아 박 구청장이 즉석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남구를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는 목직한 요구부터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수업을 늘려 달라”는 요구 등 다양한 주민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 구청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남구 전 공무원들과 함께 일기 내 남구를 반석 위에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주민과의 행복한 만남에서 주민이 박재범 남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제2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

일반상·특별상 6개 부문

남구는 제2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일반상 3개 부문과 특별상 3개 부문 등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일반상에는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한 용호3동 박복만(여향부문)씨와 1620시간의 봉사활동을 가진 김윤희(봉사부문)씨 그리고 치매 노모를 16년간 모

신 정복학(효행부문)씨를 선정했다.

특별상에는 교사로 생활하며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맡아 온 김분숙(교육부문)씨와 교통안전에 많은 기여를 한 남부경찰서 소속 이동일(치안부문)씨, 남부소방서 강례숙(소방부문)씨가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식은 제22회 오륙도평화축제 개막일인 지난 19일 특설무대에서 거행됐다. <구민상 수상자 소개 9면>

11월 6일 남구 일자리 박람회 개최

40개 기업·5개 공공기관 참여

2018년 남구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1월 6일(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8번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관내 30인 이상 우량 중소기업 등 모두 40개 업체(직접 25, 간접 15)와 부산상공회의소 등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채용 행사를 진행한다.

채용 행사 외에 취업컨설팅관,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되며 △직업심리검사 △취업 전문가의 이력서·면접 컨설팅 △증명 사진 촬영 △맞춤형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607-4292

남구 청년 대상 일본취업박람회

11월 15~16일 부경대 대연캠퍼스

부경대학교가 남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제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11월 15~16일 이틀간 부경대 대연캠퍼스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18 KOREA PKNU-JAPAN KAIE GLOBAL WIDE-BRIDGE JOB & START-UP FAIR’는 부경대 산학협력단·LINC+사업단·창업지원단·인재개발원이 일본 규슈경제인연합회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남구 지역 소재 대학생 및 졸업생만 참가할 수 있다.

일본 규슈경제인연합회 소속 50개 기업이 참여해 취업 설명회 취업상담 등을 진행한다.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만들기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행사 관련 문의 : LINC+사업단 ☎629-4276

221년 전 권총·망원경 찾습니다 <4면>

사진으로 보는 남구의기을 <7면>

산이 좋아 산이 된 남구청년 <8면>

제73회 유엔의날 특별기고 <11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22회 오륙도평화축제에 역대 최대 인파인 주민 4만 5000여명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지난 19~21일 사흘간 평화광원 일원에서 열린 오륙도평화축제는 ‘세계평화특구, 남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자유, 평화, 화합이라는 3개 큰 주제 아래 30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평화 무드와 맞아떨어져 축제 의미가 더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 <관계기사 6면>



세계평화특구 남구,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한반도 데탕트, 목각병정의 귀환

2001년 남구가 기획·제작한 6·25 애니메이션

디지털로 전환해 구청 홈페이지·유튜브 송출

남구가 17년 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 ‘목각병정 이야기(This kind of going home)’가 제73회 유엔의 날에 맞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다.

‘목각병정 이야기’는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6·25 발발 50주년을 맞아 남구청이 직접 제작비를 낸 28분짜리 2D 애니메이션이다.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한 최초의 6·25 관련 영상물로 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제작 기간만 1년이 걸렸다.

제작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해 상당 부분이 영어대사와 한글자막이 혼용다. 사실성이 강조된 전투 장면 등으로 서울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와 독일 라

이프르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에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난해한 서사와 철학적 깊이가 없고 당시 남북의 갈등 구조 등으로 제 빛을 못 보지 못한 채 기억에서 잊혀졌다.

남구는 최근 ‘한반도 데탕트’에 맞춰 이 애니메이션을 기존 VHS 비디오캡슐에서 디지털로 전환해 구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영하기로 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병정 인형을 동생에게 주고 참전한 미술학도 영철을 통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의 비극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검색어로 ‘목각병정 이야기’를 입력하면 감상할 수 있다.



남구가 제작한 6·25 애니메이션 ‘목각병정 이야기’의 나무 트로피.

유엔참전용사 위해 영자신문 발간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 행사 때 배부

유엔기념공원 전물자 명단·특별기고 수록

남구는 오는 11월 11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12회 턴투워드부산 행사 참석하는 유엔참전용사들을 위해 특별 영자신문을 발간한다.

‘NEVER FORGET YOU ALL(그대를 잊지 않겠소)’ 제목에 타블로이드판(일반 신문 크기 절반) 16페이지로 제작될 특집신문은 한글, 영어 두 개 언어로 발행된다. 유엔참전용사들을 위해 국내에서 영자신문을 발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집호는 고령의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기획됐다.

특집호에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2300여 전물자(사후안장자 및 부부합장

포함) 명단 △유엔참전용사 특별기고 △유엔평화문화특구 소개 △세계평화도시 남구의 위상 등을 다룬다. 특히 특별기고문은 ‘턴투워드부산’을 제언해 세계적 행사로 성장시킨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씨와 6·25 때 시신수습팀으로 복무하면서 유엔기념공원 조성을 도운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씨가 동료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집호는 11월 11일 당일 행사 참가자들에게 무료 배부하고 미국, 영국 등 기념공원 내 안장자 10개국의 국내 주재 외국 공관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607-4071~6